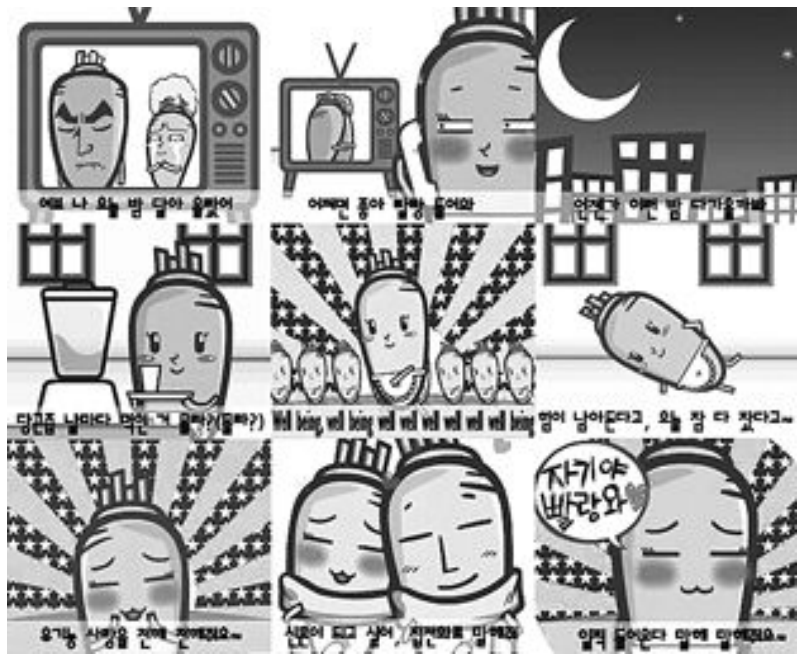


시끌벅적 e-스타



'테테 텔미' 중독... 이번엔 '성인용 버전'

"윙빙 윙빙 웨웨웨 윙빙~ ♪" 인기 노래, 동영상, 광고 등은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의해 아류작이 만들어지며 화제가 된다. '윙빙 윙빙 웨웨웨 윙빙~ ♪' 동영상은 대표적인 동영상이다. 이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최근 몇 달 사이 입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중독성, 원더걸스의 타이틀곡 '텔미(Tell me)' 노래를 개사한 것으로, 21일 올라온 뒤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퍼날라지고 있다. 1분50초짜리 동영상에 삽입된 리듬은 '텔미'지만 가사는 완전히 다르다. '텔미'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따라 부르는 노래라면 이 동영상은 성인용 버전이다.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라는 원래 가사는 "어보 나 오늘 밤 달아올랐어 / 어쩌면 좋아 / 빨랑 들어와 꿈만 같아서"로 바꿨고 '네가 날 혹시 안 좋아할까봐~ 혼자 얼마나 애태운지 몰라~'라는 부분은 '언젠가 이런 날 다가올까봐 당근즙 날마다 먹인 거 몰라'로 바꿨는데 참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신혼이 되고 싶어 일찍 들어온다고 전화해줘요'로 끝맺는 동영상은 20대 이상 네티즌에게 '원본을 이용해 또 다른 이미지나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패러디의 특성을 살린 기발한 동영상',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 아니냐'는 다양한 반응을 얻으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심청가는 할 줄 아시오?" 라고 버릇없이 묻는 반면에 "적벽가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묻는다는 옛말을 해 주면서 '적벽가'의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들려주는 윤진철 명창. 지난 11월 17일, 그를 만난 곳은 무등산 중심사 취벽루였다. 님의 "광대, 소리를 보다"라는 음반을 만난 것도 그 날이었다. 그는 국악 대사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국 최고의 TV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열씨니 학당'에서 좋은 진행으로 잘 알려진 명창이다.



GWANG-DAE whose son 소리를 보다 윤진철 Yun Jin-cheul

개지는 현상이 생기는 악기다. 그러나 국악과의 연주에서는 박자감각을 넘실거리는 경우에는 숨죽여 주어야 하고 빠른 박자인 자진모리의 경우에는 박자를 실어 얹어서 흥을 북돋울 수 있는 연주를 해야 하는 편인데, 연주 습관이 서양음악과 달라서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의 연주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 재즈의 경우 유연한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리스(피아노 없이 하는 연주)의 재즈를 1950년대 마일즈 데이비스가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진도 들노래에서의 키보드는 노력한 흔적이 느껴지며 지역

국악, 기타와 피아노를 만나다

음반에는 수궁가 적벽가 심청가 춘향가 한 대목 등이 들어 있고, 춘향가 중 속대머리와 최근 세상을 떠난 박병천님을 생각나게 하는 진도 들노래는 특히 인상이 깊다. 각각 기타와 피아노의 합주가 들어 있어서 독특하기 때문이다. 그런 시도는 더욱 많아져야 하겠지만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음의 높낮이에도 차이가 있지만, 서구 음악은 연주를 박자와 비트 위에 정확히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옛 박자를 사용한다. 그런 반면 한국의 전통음악은 박자와 비트 위에 음을 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이를 넘나드는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음악이라 할 것이다. 서양음악은 선, 한국음악은 면이라 할지. 합주를 할 때 피아노의 경우 타악기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서 비트 위에 세울 경우 박자감각을 더욱 북돋을 수 있고 비트를 벗어날 경우 박자가 쪼

의 음악인으로 30여년 내공의 장인 박문홍님의 기타와 더불어 심금을 울리는 구성진 소리의 속대머리는 애호가들의 들이 불만한 연주 목록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국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대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의 느낌으로 숨죽여 지켜보는 경우라고 한다. 그래서 윤진철 명창은 "열씨니", "그렇지", "찰한다"들의 추임새로 참여를 유도하며 서로가 호흡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요구한다. 그러면 힘도 더욱 나고 소리로 더욱 좋은 소리가 유도 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아닐까. 추임새처럼 호응하고 박수도 보내고 등을 토닥여 주면서 "당신은 잘 하고 계십니까. 다소 외롭고 고단하더라도 그 길을 놓치지 말고 자랄 줄을 가세요." 우리들의 추임새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을 것만 같다. <음악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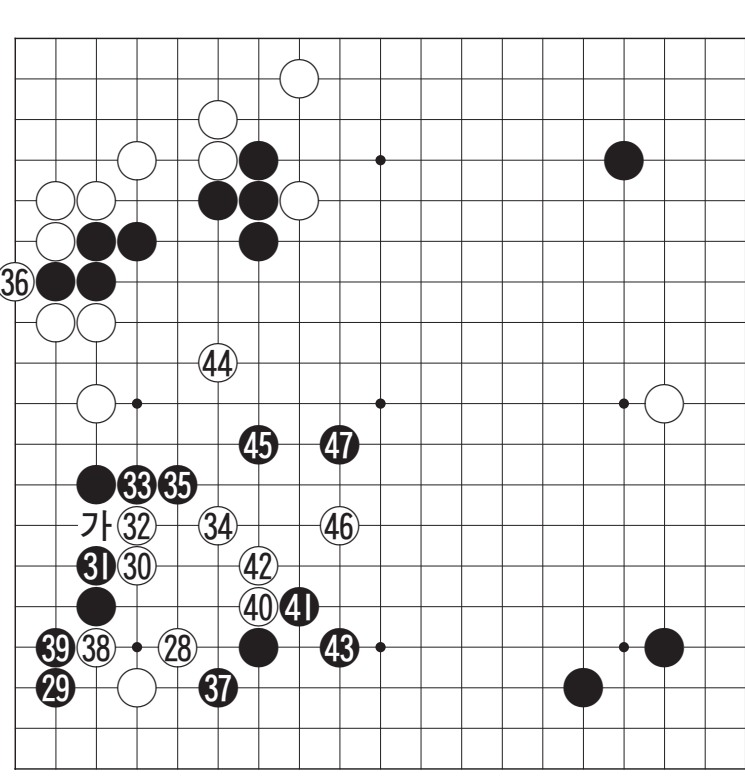
뉴스퀴즈

90.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지난 16일 8개조 49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남북은 이 공단 활성화에 대해 내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내 남북 인원과 차량들의 공단 출입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공단의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공단은 어디일까요. ①개성공단 ②여천공단 ③하남공단 ④송암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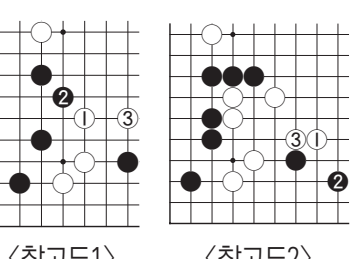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2일(음 10월 13일 庚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전국 아마최강 결승전



백 28로 나갔을 때 흑 29로 미끄러진 것은 놓칠 수 없는 요소다. 백의 근거를 빼앗으므로 해서 백을 공격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백 30은 일견 당연해 보이나 기분에 치우친 수로 보인다. 이 수로는 단순하 '참고도1'의 백 1로 뛰고 3으로

바둑소식

루이·김혜민 기성전 패권 다투 루이 나이웨이 9단과 김혜민 5단이 제2회 부안 여류기성전 타이틀을 다툰다. 21일 전북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특별대극실에서 열린 이 대회 4강전에서 루이 나이웨이 9단과 김혜민 5단이 각각 박지는 8단과 조혜연 7단을 불계로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무대에 오른 루이 나이웨이는 대회 2연패에 나서고, 김혜민 5단은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 두 기사간 역대 상대전적에서는 루이 9단이 2승으로 앞서 있다. 루이 9단은 2004년과 2006년 여류국수전 본선에 각각 5단을 꺾었다. 결승전은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윤영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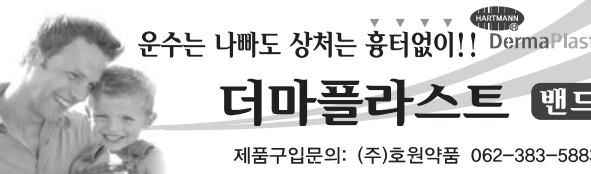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nglish (All right, I'll go with you.), Japanese (どうぞお楽(らく)に.), Chinese (喂,你好!), and Korean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includes a sample sentence and its translation.